하나님께 받는 박사학위

(사무엘하 4:1~12)

7.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8.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11.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받는 박사학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박사학위'

미국에서는 박사 학위를 PhD라고 합니다. PhD는 본래 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를 뜻하는 말로 독일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일의 대학은 본래 법학 의학 신학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위한 기관으로서 시작했는데, 19세기 초에 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개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자격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독일에서는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이라고 불렀는데 응시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박사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교수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빌리타치온 과정을 밟으며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힌트를 얻은 미국에서 1861년에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이 생기게 되었고 독일에서 유래한 대로 PhD로 명명하게 되고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Philosophische'라고 했는데 정작 독일에서는 분과별로 박사학위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박사(博士)'라는 말 자체는 넓을 박(博)자를 쓰지만 사실 박사학위 논문은 아주 좁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넓게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고 작은 테마를 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의미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박사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박사의 실천적 의미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연구해서 내놓는 결과가 개관성과 타당성을 띌 수 있을 정도로 학문의 적합한 연구방법에 숙달된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박사인데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이 박사학위 역시 세상의 박사학위처럼 과정이 있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분야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분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든지 PhD 하나의 이름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박사학위는 이름이 다양하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취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학위입니다. 세상의 박사학위는 어렵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박사학위는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학위를 가졌을 지라도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교회는 박사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대의 교수님들이 주축이 되어 세우셨던 교회였는데, 제직회를 하게 되면 1/3이 박사였는데 세계에서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잔디 박사, 소나무 박사, 벼 박사 등 박사의 타이틀이 다양했습니다. 그때가 84년 정도였는데 88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잔디 박사님은 경기장에 잔디를 입혀야 하므로 건설현장을 늘 오가시며 아주 바쁘셨습니다. 벼 박사도 벼를 잘 크게 하는 것뿐 아니라 벼멸구(벼에 생기는 벌레) 박사도 있고 무궁화 박사도 있고 속리산의 정2품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박사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박사학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 박사 아내 박사 학위를 따야 하는데, 박사가 되지 않으면 부부간에 탈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신다면 아빠 박사가 돼야 하고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엄마 박사가 돼야 합니다. 사장님이면 사장님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하고, 장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장사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박사학위, 건강 박사학위, 연애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혼자 공부한 것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아내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책을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다윗의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보셋 왕의 11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교 두 사람이 군량미를 얻기 위해 왕궁에 왔다가 이스보

셋이 잠든 것을 보고 칼로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달려와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칭찬과 큰 상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다음 장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고 왕위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왕 박사학위의 과정의 졸업단계를 되짚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갖가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다윗이 왕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내 삶에 관계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녀를 기르면 자녀 박사가 되고 취업 문제에 관하여서는 취업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도 취업 박사가 될 수 있고 건강 박사 등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박사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단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며 이스라엘 내에서 왕재(王才)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서 관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삶에서 많은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끼어드셔서 다윗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 단계로 첫 번째 박사학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 박사가 되고 아내 박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이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덧붙여져야만 합니다. 자녀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나와 관계를 맺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살해의도와 시기와 질투를 피해 도망을 다녔던 다윗의 10년 세월이 이러한 과정입니다. 다윗은 첫째 단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왕위를 약속받게 되었지만, 현재 왕위에 있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체질을 습득하게 됩니다. 첫째 단계에서 많은 대상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끼어드시게 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체질을 습득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필수과정입니다.
다윗이 왕 박사가 되기 위해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만 했던 것처럼, 남편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만 합니다. 아내 박사도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좋아해야 합니다. 아빠 박사도 마찬가지인데 아빠 박사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어야 아빠 박사 엄마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피땀 흘려 세운 회사의 사장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을 때에 사장님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요즘 목회학 박사를 좋아하는데 목회학 박사가 되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목회 박사가 되어야만 하는데 목회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안 온다고 해서 인상을 쓰는 목사는 목회 박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 안 와도 하나님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교인이 없는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쥐어짜며 교인 수를 늘리려고 별의별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교인을 늘리려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알려지는 단계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기간이 8년 가까이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 패해서 죽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주었는데 다윗은 이들의 행동을 특별히 훌륭한 일로서 칭찬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임) 이러한 다윗을 정치적 제스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쪽으로 붙었습니다. 또한 아브넬의 죽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 죽이는 줄 알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금식을 하며 애도한 것을 통하여 다윗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 대적하여 이스보셋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11지파를 결집시킨 사람인데 그러한 자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3장에 보면 시기적으로는 아브넬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했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보다 늦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 이스라엘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스보셋 왕을 죽인 장교들을 다윗이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은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윗 스스로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체질을 습득한 것이라면 그렇게 혼자 습득한 체질이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볼 때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위를 더 좋아했다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했고, 아브넬의 죽음을 기뻐했을 것이며,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 박사나 남편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임이 매사에 드러나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좋아하면 좋아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박사는 사원들이 사장을 볼 때에 회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사람임이 알려져야만 합니

다. 이럴 때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때에 배우자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아빠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지식이나 인생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더 좋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왕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박사 학위를 받게 합니다. 회사에 나갈 때에는 회사 박사, 자식을 대할 때에는 자식 박사, 배우자를 대할 때에는 남편 박사 아내 박사가 됩니다. 건강 박사는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 몸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던 다윗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드러날 때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번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박사 학위를 오늘도 7~8개씩 받으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박사 학위 2~3개 받으면 세상은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7~8개씩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박사 중의 박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